

수행불교로서의 염불결사에 관한 연구 신라 중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ith association of Chant as Buddhism for practice : focusing on Shilla-middle period

저자 (Authors)	박서연 Seo Yeon Park
출처 (Source)	불교학보 68 , 2014.7, 135-158(24 pages) BUL GYO HAK BO 68 , 2014.7, 135-158(24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3695
APA Style	박서연 (2014). 수행불교로서의 염불결사에 관한 연구. 불교학보, 68, 135-15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 사문화관 183.106.106.*** 2021/10/22 10:2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수행불교로서의 염불결사에 관한 연구*

- 신라 중대(中代)를 중심으로 -

박서연**

< 목 차 >

- | | |
|-------------------------------|------------------------|
| I. 서언 | 1. 염불결사에 보이는 수행불교적 성격 |
| II. 신라 중대 염불결사의 유형 | 2. 염불결사를 통해 본 신라인의 왕생관 |
| III. 신라 중대 염불결사의 경전적 배경 | V. 결어 |
| IV. 신라 중대 염불결사의 수행불교적 성격과 왕생관 | |
-

<한글요약>

본고에서는 신라 중대 염불결사의 수행불교적 성격과 이를 통해 보이는 신라인들의 왕생관에 대해 고찰하였다. 『삼국유사』 소재(所載) 염불왕생 설화에 의하면, 신라 중대에는 두 사람의 염불 왕생 결의를 비롯하여 5명, 수십 명, 1천 명이 참여하는 염불결사의 형태가 보인다. 이들 염불왕생 설화들은 기본적으로 『무량수경』·『관무량수경』 등 정토계 경전과 관련이 있지만, 경설(經說)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은 뒤가 아닌 현세에서의 왕생을 회구함으로써 신라인들의 창의적 아미타신앙관을 보여 주기도 한다. 원래 아미타신앙은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하여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타력적 요소가 강하지만, 신라 중대의 염불결사에서는 이러한 타력적 요소와 함께 수행불교적인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그 첫째는 지극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염불하는 정진력에 의해 정토왕생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만일계(萬日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61-A00008)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契)'라고 하여 염불결사의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옥면 설화에서, 옥면은 졸음을 쫓기 위해 두 손바닥을 새끼줄로 꿰어 말뚝에 묶고 흔들며 합장 염불하고 있다. 옥면은 정도에 왕생하겠다는 그의 간절한 마음과 노력으로 결국 왕생하게 되는데, 비록 노비이지만 염불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 때문에 스스로 구속되거나 제약을 받는 모습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당시 염불수행자의 자존감을 읽을 수 있으며, 나아가 신라 중대의 염불결사는 하층민들에게도 삶의 본질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둘째는 정도왕생을 위해 지계를 중시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포천산 5비구 설화에서뿐만 아니라, 옥면 설화의 『승전』의 기록에서 옥면이 과거 생애 동량팔진(棟梁八珍)이 주도하는 염불결사에 참여하여 일을 맡아 하면서 계를 지키지 못하여 그 다음 생애 부석사의 소로 태어났고, 경을 신고 다닌 공덕으로 다시 현생애 노비로 태어난 인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신라 중대의 염불결사에서 염불수행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수행력과 발보리심, 그리고 지계의 실천에 의해 정도왕생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실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염불결사, 삼국유사, 옥면, 정도, 지계, 왕생, 신라

1. 서언

우리나라에서 염불결사는 일찍이 신라시대부터 보이고 있다. 『삼국유사』에 실린 염불 왕생 설화를 살펴보면, 두 사람의 염불 왕생 결의에서부터 다섯 사람, 수십 명, 나아가서는 1천 명이 참여하는 염불결사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두 사람이 한 염불결의는 광덕·엄장 설화에 보이며, 염불결사의 전단계로 생각되는 5인의 염불결사는 포천산 5비구 설화에 보이고, 수십 명 혹은 1천 명이 참여한 염불결사는 옥면 설화에 보인다. 아미타신앙이 성행하던 신라 중대에 결사의 형식으로 염불수행하여 정토왕생하였다는 이러한 기록들은, 오래전 신라인들이 경험한, 염불수행을 통한 성불, 혹은 해탈의 가능성을 그 양상은 다를지라도 현대의 우리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구체화시키는 데 일조한다.

신라 중대의 염불 왕생 설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중에는 『삼국유사』 소재(所載) 염불 왕생 설화에 대해 그 주인공들이 염세적이라든가, 혹은 현실도피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간주하는 연구도 있는데,¹⁾ 본고에서는 이러한 측면보다는 염불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설화의 주인공들을 염불수행자로 보고 극락정토에 왕생하기 위해 그들이 실천했던 염불수행이 정토계 경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그들의 왕생관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결사 형태의 염불수행은 여산 혜원의 백련결사에서 연원하지만 1만 일을 기약하고 실행한 것은 신라 염불결사의 독특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옥면 설화에는 만일염불결사로 간주할 수 있는 ‘만일계’라는 용어가 보이므로 만일염불결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료가 된다. 이 설화는 결사 연대와 장소 등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선학들이 자세히 논구하였으므로²⁾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신라 중대에 아미타신앙의 성행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 외에도 아미타신앙이 지닌 중생구제라는 본질적 요소 및 당시 승려들의 정토계 경전 연구에 뒷받침된 것이었다.³⁾ 이를 통해 당시 지식계층에서는 정토계 경전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

- 1) 李基白, 「신라 淨土信仰의 諸樣相」, 『한국불교학연구총서』 (고양: 불함문화사, 2003), p.139.
- 2) 신종원, 「『삼국유사』 『옥면비염불서승』조에 보이는 역사와 설화」, 『전통문화논총』 제7권 (서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09.8) ; 최성렬, 「삼국유사 옥면비염불서승조의 몇 가지 문제점」, 『한국불교학』 제6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1981.12) 등이 있다.
- 3) 김영미, 「통일신라시대 아미타신앙의 역사적 성격」, 『한국사연구』 제50·51집 (서울: 한국사연구회, 1985), p.396.

며, 염불 왕생 설화에 나오는 염불수행자들 중에는 이러한 지식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토계 경전들인 『무량수경』·『관무량수경』·『아미타경』에는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방법이 설해져 있다. 염불결사를 실행한 신라인들은 이들 경전에 설해진 내용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라 중대 염불 왕생 설화를 정토계 경전과 관련지어 고찰하는 연구는 아직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듯하다.⁴⁾ 이에 본고에서는 이들 설화를 정토삼부경과 비교하여 그 경전적 배경을 고찰하고, 수행불교로서의 성격 및 신라인들의 왕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신라 중대 염불결사의 유형

『삼국유사』에 실린 염불 왕생 설화들은 결사에 참여하는 인원수, 염불하는 기간, 참여 대중의 성격 등에 따라 여러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염불결사는 신라 중대, 특히 경덕왕대에 두드러지지만 그 이전에도 소수의 인원만으로 행하는 수행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무왕대에 광덕과 엄장이라는 두 사문(沙門)이 있었는데 우애 있고 착하였다. 그들은 밤낮으로 약속하기를, “먼저 안양(安養)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알리자”고 하였다. 광덕은 분황사 서쪽 마을[혹은 황룡사(皇龍寺)에 있는 서거방(西去房)이라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에 은거하여 신발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면서 처자를 데리고 살았고, 엄장은 남악(南岳)에 암자를 짓고 거처하였는데 나무를 베어 태우고 농사를 지었다. 어느 날 해 그림자가 붉게 물들고 소나무 그늘에 어둠이 깃들 즈음 창 밖에서 소리가 나면서 알렸다. “나는 이제 서방으로 가니, 그대는 잘 있다가 속히 나를 따라오게.” 엄장이 문을 열고 나가 보니, 구름 밖에서 하늘 음악 소리가 들리고 광명이 땅에까지 뻗어 있었다. 이튿날 그가 살던 곳에 찾아가 보니, 광덕이 과연 죽어 있었다. 이에 그의 아내와 함께 유해를 거두어 장사지냈다.⁵⁾

4) 신라 중대 염불 왕생 설화를 정토계 경전과 관련하여 고찰한 논문으로는 김영미, 『통일신라시대 아미타신앙의 역사적 성격』, 『한국사연구』 제50집 (서울: 한국사연구회, 1985); 章輝玉, 『신라 미타신앙의 고찰』, 『백련불교논집』 1 (합천: 해인사 백련불교문화재단, 1992) 등이 있다.

5) 『삼국유사』 권5 感通7, 廣德嚴莊 條.

광덕과 엄장은 정토왕생에 뜻을 두고 수행하였는데, 그들은 서로 우애 있게 지내면서 먼저 왕생하는 사람은 반드시 서로 알리자고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광덕이 먼저 서방으로 가게 되었을 때, 약속한 대로 엄장에게 알리고 갔다. 결사를 어떤 종교적인 이념을 강하게 실천하기 위해 취해지는 동지결속의 공동체라고 한다면,⁶⁾ 광덕·엄장 설화에 나타난 서방 왕생에의 약속은 비록 두 사람의 결의에 불과하지만 결사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성덕왕대의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설화에서도 두 사람이 행한 염불결사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경덕왕 때의 백월산 남사(白月山南寺) 창건연기설화와도 관련된다. 또한 포천산(布川山) 5비구 설화는 다섯 명의 출가 사문이 함께 염불수행하여 왕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것을 만일염불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다섯 비구가 한곳에 모여 10여 년 동안 염불을 하였고 그들의 왕생 장면이나 시기가 아미타신앙이 성행하던 경덕왕대의 일인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염불결사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만일염불결사 전단계의 형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⁷⁾ 이 포천산 5비구 설화는 당시에 아미타신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수행그룹이 있었음을 암시하는데,⁸⁾ 여기에 재가자의 참여는 보이지 않으며 또한 5비구의 염불수행을 후원한 재가자 집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으므로 향도의 존재 여부 또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승속이 함께 참여한 비교적 큰 규모의 염불결사는 『삼국유사』의 『육면비염불서승(郁面婢念佛西昇)』조에 보인다.

경덕왕대에 강주(康州)[지금의 진주(晉州)]이며, 강주라고도 하는데 곧 지금의 순안(順安)이다.]의 선사(善士) 수십 명이 서방정토에 뜻을 두고 구하여 주(州)의 경계에 미타사(彌陀寺)를 창건하고 만 일을 기약하며 계(契)를 만들었다. 그때 아간(阿干) 귀진(貴珍)의 집에 ‘육면’이라는 한 계집종이 있었는데, 그 주인을 모시고 절에 가 뜰 가운데 서서 스님을 따라 염불하였다. 주인은 그녀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여 매번 곡식 두 섬을 주어 하루저녁에 다 쪼개 하였다. 그러나 계집종은 초저녁에 다 쪼개놓고는 절에 와서 염불하기를[속담에 “내 일 바빠 주인집 방아 서두른

6) 한보광, 『신앙결사의 유형과 그 역할』, 『불교학보』 제30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3), p.165.

7) 한보광, 『신라·고려대의 만일염불결사』, 『불교학보』 제31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4), p.144.

8) 鄭柄朝, 『義湘의 彌陀信行 研究』, 『新羅文化』 제7집 (경주: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0), p.3.

다”는 말은 대개 여기서 나온 듯하다.]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의 좌우에 긴 말뚝을 세우고는 두 손바닥을 뚫어 새끼줄로 꿰어 말뚝에 매달고 합장하여 좌우로 흔들면서 스스로 격려하였다. 이때 하늘에서 외쳤다. “옥면 낭자는 법당에 들어가 염불하라.” 절의 대중들이 이 소리를 듣고는 계집종에게 권유하여 법당에 들어가 법식에 따라 정진하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 음악이 서쪽으로부터 들려오더니, 계집종이 몸을 솟구쳐 집 들보를 뚫고 나갔다. 서쪽으로 가더니 교외에 이르러 유해를 버리고 진신(眞身)을 변현(變現)하여 연화대에 앉아 큰 광명을 내며 천천히 가버렸으며, 음악소리가 공중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 법당에는 지금도 구멍이 뚫린 곳이 있다고 한다.[이상은 「향전」이다.]⁹⁾

옥면이 염불하여 왕성한 것에 대해서는 「향전(鄉傳)」과 「승전(僧傳)」의 두 기록이 전한다. 위 인용문은 「향전」의 내용으로서 여기에 비로소 만일염불결사의 시작이 보이고 있다. 만일염불결사는 중국이나 일본의 아미타신앙 결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한국 아미타신앙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결사 형태이며, 『삼국유사』 「옥면비염불서승」조가 그 최초 사료에 속한다.¹⁰⁾ 「향전」에서 ‘아간 귀진 등 선사(善士) 수십 명에 의해 미타사가 창건되었다’고 한 것은 만일계와 미타사의 창건이 재가신자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옥면이 스님들을 따라 염불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이 결사는 사부대중이 동참한 염불결사였을 것이다. 그리고 아간 귀진이 자신의 노비가 따라와서 함께 염불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으로 보아, 노비 등 천민의 참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면이 줄음을 떨치기 위해 손바닥을 밧줄로 꿰어가면서까지¹¹⁾ 치열하게 염불 정진한 이유가 자신의 신분에서 해방됨을 회구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때, 이는 신라의 신분제도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옥면 설화는 위의 인용문 외에 다음과 같은 「승전」의 기록도 전한다.

승전을 살펴보면 동량팔진(棟梁八珍)은 관음의 응현(應現)으로서 무리 1천 명을 모아 둘로 나누어 한쪽은 힘써 일하게[勞力] 하고 한쪽은 정성껏 닦게[精修] 하였다. 그

9) 『삼국유사』 권5 感通7, 郁面婢念佛西昇 條.

10) 한보광, 「만일염불결사의 성립과 그 역할」, 『정토학연구』 창간호 (서울: 대각회, 1998), p.66.

11) 이에 대해서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옥면이 처형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 신종원의 연구가 있으며, 그는 옥면이 지붕을 뚫고 서쪽으로 날아간 것은 죽어서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힘써 일하는 무리 중에 일을 맡아보는 자가 계(戒)를 얻지 못하여 축생도에 떨어져 부석사의 소가 되었는데, 일찍이 경(經)을 읽고 가다가 경의 힘을 입어 다시 아간 귀진의 집 계집종으로 태어나 이름을 ‘옥면’이라 하였다. 옥면은 일이 있어 하가산(下柯山)에 갔다가 꿈에 감응하여 마침내 도심(道心)을 내었다. 아간의 집이 혜숙(惠宿) 법사가 창건한 미타사로부터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으므로 아간은 매번 그 절에 가서 염불하였는데, 계집종도 따라가 뜰에서 염불하였다. 이렇게 9년 동안 하였는데, 을미년 정월 21일에 예불하다가 집의 들보를 뚫고 나갔다. 소백산에 이르러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렸으므로 그 자리에 보리사(菩提寺)를 지었으며, 산 아래에 이르러서는 그 몸을 버렸으므로 그곳에 두 번째 보리사를 짓고 그 전(殿)에 방을 써 붙이기를 ‘옥면등천지전(玉面登天之殿)’이라 하였다. 집 등성마루의 구멍이 열 아람[闔] 가람 되었지만 폭우가 쏟아지거나 함박눈이 내려도 젖지 않았다. 훗날 호사자(好事者)가 금탑 1좌(座)를 본떠 만들어 그 구멍에 맞추어 소란반자[承塵] 위에 모시고 그 이적을 기록하였는데, 지금 방과 탑이 아직도 남아 있다. 옥면이 간 후 귀진 또한 그의 집이 이인(異人)이 의탁해 살았던 곳이라 하여 회사하여 절로 삼아 ‘법왕사(法王寺)’라 하고 토지와 소작인을 바쳤다.¹²⁾

위 「승전」의 기록에 의하면, 결사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정수(精修)’와 ‘노력(勞力)’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역할분담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정수’는 염불수행에만 전념하는 수행자 그룹이고, ‘노력’은 이들 수행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그룹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1천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각 그룹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수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며, 그 중 ‘노력’은 향도(香徒)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한다. 향도는 신라시대부터 조직되었던 결사체로서, 불교라는 공통의 신앙을 배경으로 공동체적 수행이나 불사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다.¹³⁾ 신라통일기 중대에 해당하는 시기의 향도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옥면비염불서승」조의 만일계(萬日契)는 기록상 향도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지만 신앙조직으로서 향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¹⁴⁾ 「향전」에서 만일계라고 한 것은 ‘만일염불회’라고 할 때처럼 결사의 일수를 중심으로 말한 것이다. 이는 만 일이라는 구체적

12) 『삼국유사』 권5 感通7, 郁面婢念佛西昇 條.

13) 김성순, 「동아시아 민간불교결사의 공덕신앙과 葬儀-한국의 향도와 돈황의 읍사」, 『종교연구』 제62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2011), p.267.

14) 채상식, 「한국 중세시기 香徒의 존재양상과 성격」, 『한국민족문화』 제45집 (부산: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p.68.

인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결사로서 중국에서 염불의 횟수를 중요시했던 것과 비교된다.¹⁵⁾ 결사의 명칭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왔는데, 계(契)·회(會)·향도(香徒)·보(寶)·사회(社會)·법회(法會)·사(社) 등의 용어가 쓰여졌다.¹⁶⁾ 아미타신앙에 의거한 염불결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오로지 아미타불을 염하는 데에만 일념으로 정진하는 것이기에 이전까지 행하던 개인적이고 단순한 아미타신앙이 아니라 규모가 확대되고 전문화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들이 수반되며¹⁷⁾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향도 조직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특히 『승전』의 기록처럼, 1천 명이 참여한 대규모 결사는 그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염불수행에만 집중하는 수행자들 외에 이들이 염불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향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노력(勞力)’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1만 일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결사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노력’이, 『향전』에서 말한 만일계를 주도한 선사(善士)들과 비교하여 그 역할이나 위상 등의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신라 중대 염불결사의 경전적 배경

불교경전에서는 여러 종류의 정도와 그곳에 머무는 부처를 설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폭넓게 신앙되고 있는 것은 서방정도인 극락세계와 아미타불이다. 현존하는 대승경론 중에서 아미타불에 대해 설하는 대표적인 경전은 『무량수경』·『관무량수경』·『아미타경』이다. 신라시대 대부분의 정도교가들은 이들 경전을 중심으로 정도사상을 연구하였으며, 염불결사는 이러한 사상적 토대 위에서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¹⁸⁾

15) 김영미, 「고려 전기의 아미타신앙과 결사」, 『정도학 연구』 제3집 (서울: 한국정도학회, 2000), p.148.

16) 한보광, 「신앙결사의 성립배경에 관한 연구」, 『불교학보』 제29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2), pp.324-325.

17) 文明大, 「景德王代之 阿彌陀 造像問題」, 『李弘植 博士 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서울: 新丘文化社, 1969), p.679.

18) 한태식(보광), 「한국 정도사상의 특색」, 『정도학연구』 제13집 (성남: 한국정도학회, 2010.6), p.96 참조.

앞에서 언급한 광덕·엄장 설화에서, 광덕이 왕생할 때 “하늘의 음악소리가 들리고 광명이 땅에까지 뻗쳐 있었다”고 하였는데,¹⁹⁾ 이는 위의 정토삼부경 곳곳에 설해져 있다. 또한 광덕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하는 일 외에 닦은 16관(觀)은 『관무량수경』에 자세히 설해져 있다.²⁰⁾ 이 16관은 위제희(韋提希)를 비롯하여 부처님이 멸도한 뒤에 오염되고 선하지 못하여 다섯 가지 괴로움에 휩박당하는 중생들이 극락세계를 볼 수 있는 방편으로서 제시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광덕은 정토삼부경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서 염불을 실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설화에서, 두 사람은 백월산(白月山) 무등곡(無等谷)으로 들어가 각각 동쪽과 북쪽에 살면서 노힐부득은 미륵을, 달달박박은 미타를 부지런히 염구(念求)하여 3년이 못되어 관세음보살의 도움으로 성불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밤이 되자 노힐부득은 마음을 맑게 하고 지조를 가다듬어 희미하게 등불이 비치 는 방에서 은은히 염불했다. 이윽고 새벽 무렵이 되어 남자가 노힐부득을 불러 말했다. “제가 불행히도 산기가 있으니 스님께서 짚을 좀 깔아 주십시오.” 노힐부득은 불쌍히 여겨 거절하지 못하고 촛불을 들고서 은근하게 도와주었다. 남자는 해산을 마치자 또 목욕하기를 청했다. 노힐부득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교차하였으나 기없는 마음이 더하여 또 목욕통을 준비하여 남자를 그 안에 앉히고 물을 끓여 목욕 시켰다. 얼마 후에 통 안의 물에서 향기가 그윽하더니 금빛 물로 변했다. 노힐부득이 크게 놀라니, 남자가 말하였다. “우리 스님께서도 여기서 목욕하십시오.” 노힐부득이 마지못해 그 말에 따랐더니, 문득 정신이 맑고 상쾌해지며 피부가 금빛으로 변하였다. 옆을 보니 홀연히 연화대[蓮臺]가 생겼는데, 남자가 거기에 앉기를 권하면서 말하였다. “나는 관음보살인데 대사를 도와 대보리(大菩提)를 이루게 하려고 왔습니다.” 말을 마치자 보이지 않았다. 달달박박은 노힐부득이 오늘 밤에 필시 계를 더럽혔을 것이니 가서 비웃어 주리라고 생각하고 가서 보니, 노힐부득은 연화대에 앉아 미륵존상이 되어 광명을 발하고 몸은 단금(檀金)으로 물들어 있었다. 달달박박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면서 말하였다.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노힐부득이 그 사유를 자세히 말하자, 달달박박은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는 이에 장애가 심하여 대행스럽게도 관음대성을 만났으면서도 도리어 만나지 못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대

19) 『삼국유사』 권5 感通7, 廣德嚴莊 條.

20) 『관무량수경』 (『대정장』 12, pp.341下-346上).

덕지인(大德至仁)께서는 저보다 먼저 뜻을 이루셨으니, 원컨대 옛날의 교분을 잊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도와주십시오.” 노힐부득이 말하였다. “통에 아직 금빛 물이 남아 있으니 목욕할 수 있습니다.” 달달박박도 목욕을 하니, 노힐부득처럼 무량수불(無量壽佛)이 되어 두 부처가 엄연히 서로 마주 대하였다. 산 아래 마을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앞다투어 와서 우러러보며 감탄하였다. “희유하고 희유한 일이다.” 두 성인은 법의 요체를 설하고는 온몸이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²¹⁾

여기서 노힐부득이 성불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에 처한 남자를 도와준 대승보살의 자비심에 연유하며, 그의 대승적 근기가 성숙되어 있어 관세음보살의 조응(助應)이 더해짐으로써 성불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포천산 5비구 설화에서도 정토삼부경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삽량주(歙良州) 동북쪽 20리쯤 되는 곳에 포천산이 있는데 석굴이 기이하고 빼어나 마치 사람이 깎아 만든 듯하다. 이곳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섯 명의 비구가 와서 머물며 미타(彌陀)를 염(念)하였다. 서방정토를 구한 지 거의 10년이 되었을 때 홀연히 성중(聖衆)이 서방으로부터 와서 그들을 맞이하였다. 이에 다섯 비구는 각기 연화대에 앉아 허공으로 오르더니 가서 통도사 문 밖에 이르러 머물렀는데, 하늘 음악이 간간이 연주되었다. 절의 승려가 나가서 보니, 다섯 비구는 무상(無常)·고(苦)·공(空)의 이치를 설하고는 유해를 벗어버리고 큰 광명을 내며 서쪽을 향해서 갔다. 그들이 유해를 버린 곳에 절의 승려가 정자를 세우고 ‘치루(置樓)라 이름했는데, 지금도 남아 있다.²²⁾

위 인용문에는 다섯 비구가 서방정토를 구하여 염불 수행한 결과, 서방정토로 왕생하게 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다섯 비구는 왕생하는 도중에 통도사 문 밖에 이르러 머물렀는데, ‘통도사’라는 신라땅의 사찰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정토왕생이 신라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하겠으며, 특히 통도사 문 밖에서 무상·고·공의 이치를 설하였다고 한 것은 『관무량수경』의 다음 내용과 유사하다.

대(臺)의 양쪽에는 각기 백억의 꽃 깃대[花幢]와 한량없는 악기가 있어 이로써 장

21) 『삼국유사』 권3 塔像4, 南白月二聖努盼夫得怛怛朴朴 條.

22) 『삼국유사』 권5 避隱8, 布川山五比丘 條.

엄하였다. 여덟 가지 청량한 바람이 광명으로부터 나와 이 악기를 두드리면 고·공·무상·무아의 음(音)을 연설한다.²³⁾

이것은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서방을 상상하는 16관 중에 두 번째 관(觀)인 ‘물을 상상하는 것[水想]’의 일부분이다. 광명에서 나온 맑은 바람이 대의 양쪽에 있는 악기들을 스치면 모든 것은 공하고 괴로움이며 무상하고 무아라는 불교의 핵심교리를 연설한다는 것이다. 무상·고·공·무아의 이치를 설하는 것은 『관무량수경』의 중품하생을 설명하는 곳에서도 보인다.

중품상생자는 만일 어떤 중생이 오계를 수지하고 팔계계를 지니며 모든 계를 닦아 행하고 오역죄를 짓지 않아 온갖 허물과 악함이 없으며 이러한 선근으로써 회향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구하면 이러한 행자는 목숨이 다하려 할 때에 아미타불이 모든 비구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놓으시며 그 사람의 처소에 이르러 고·공·무상·무아를 연설하시고, 출가하여 온갖 괴로움을 여의게 되는 것을 찬탄하신다. 행자가 보고서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며 스스로 자기 몸이 연화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는 길게 무릎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예배드리는데 머리를 들기도 전에 곧 극락세계에 왕생한다.²⁴⁾

이것은 16관 가운데 제15관으로서 ‘중배로 태어나는 상상[中輩生想]’의 일부분이다. 계율을 지키며 오역죄를 짓지 않는 이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임종시에 아미타불이 광명을 놓으면서 비구와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그 사람에게 와서 무상·고·공·무아를 연설한다. 행자가 보고서 환희하며 자신이 연화대에 앉은 모습을 보고는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머리를 들기도 전에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포천산 석굴에서 10여 년간 엄불한 5비구는 계를 지키고 악업을 행하지 않아 허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만을 바라면서 엄불수행에 매진하였으므로 위의 『관무량수경』의 내용처럼 왕생의 조건을 갖춘 것이 된다. 그리하여 그들이 임

23) 『관무량수경』(『대정장』 12, p.342上), “於臺兩邊 各有百億花幢無量樂器 以爲莊嚴 八種清風 從光明出 鼓此樂器 演說苦空無常無我之音 是爲水想 名第二觀。”

24) 『관무량수경』(『대정장』 12, p.345中), “中品上生者 若有衆生受持五戒 持八戒齋 修行諸戒 不造五逆 無衆過惡 以此善根 迴向願求生於西方極樂世界 行者臨命終時 阿彌陀佛與諸比丘眷屬 圍繞 放金色光至其所 演說苦空無常無我 讚歎出家得離衆苦 行者見已心大歡喜 自見己身坐蓮花臺 長跪合掌爲佛作禮 未舉頭頃即得往生極樂世界。”

중할 즈음에 성중(聖衆)이 서방으로부터 와서 그들을 맞이하였고, 다섯 비구는 각자 연화대에 앉아 허공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통도사 문 밖에 이르러 무상·고·공을 설하고는 유해를 버리고 큰 광명을 내며 서쪽으로 가버린다. 이러한 『삼국유사』의 기록은 『관무량수경』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신라 중대의 염불 왕생 설화들은 대체로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 등 정토계 경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설(經說)과 달리, 신라 사람들은 죽은 뒤가 아닌 현재에서 왕생함을 바랐는데, 이는 정토계 경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바탕 위에서 그것을 살아서의 왕생으로 변용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경전의 설에 의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라인들만의 창의적 아미타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다.

IV. 신라 중대 염불결사의 수행불교적 성격과 왕생관

1. 염불결사에 보이는 수행불교적 성격

염불은 재가와 출가, 상근기와 하근기의 구별 없이 누구나 쉽게 닦을 수 있는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다. 염불이 갖는 이러한 이행도(易行道)적인 측면은 아미타신앙의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흔히 정토왕생은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한 삶을 사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불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무량수경』에서도 무량수불의 국토에 태어나는 중생은 모두 정정취(正定聚)에 머물며 그 국토에 왕성한 이는 불퇴전(不退轉)에 머문다²⁵⁾고 하여, 일단 정토에 왕생하게 되면 성불에 근접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서방정토는 목적지가 아니라 성불로 가는 경우지라고 할 수 있다.²⁶⁾

초기·부파 불교에서도 염불수행에 의해 궁극에는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여 염불을 수행법의 하나로써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정토계 경전에서 정토왕생의 실천법으로서 염불을 설하고 수행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초기·부파 불교의 염불수

25) 『무량수경』 권하 (『대정장』 12, p.272中), “其有衆生生彼國者 皆悉住於正定之聚 所以者何 彼佛國中無諸邪聚及不定之聚……至心迴向願生彼國 卽得往生住不退轉。”

26) 권기중, 『미타염불과 관음염불의 동이점』, 『천태학연구』 제14집 (서울: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11), pp.58-59.

행관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²⁷⁾ 염불이 가지는 이러한 수행적 측면은 신라 중대에도 보인다. 이 시기에 들면서 아미타신앙은 염불을 통한 수행이라는 불교 본래의 수행적 신앙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자(死者)의 명복 기원이라는 아미타신앙 유포 초기와는 다른 모습이다.²⁸⁾

주지하듯이 염불수행을 조직적으로 실행한 염불결사의 효시는 동진의 여산 혜원(慧遠, 334-416)이 결성한 백련결사(白蓮結社)이다. 백련결사는 혜원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 및 지식인층 재가자들이 참여하였으며, 계율을 지키는 것이 수행법으로서 중시되었다. 여산 혜원의 백련결사 뿐만 아니라 국 정토교의 선도(善導, 613-681)도 염불을 함에 있어 지계를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삼국유사』 소재 염불 왕생 설화에서도 나타난다.

…장사지내는 일을 마치자, 엄장이 부인에게 말하였다. “남편이 죽었으니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소?” 부인이 말하였다. “그러지요.” 드디어 그 집에 머물렀는데, 밤이 되어 엄장이 정을 통하려고 하자, 부인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말했다. “대사가 정토를 구하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장이 놀라며 괴이하게 여겨 물었다. “광덕도 이미 그러했는데, 나 또한 어찌 방해되리요?” 부인이 말하였다. “남편은 나와 10여 년이나 함께 살았지만 일찍이 하룻밤도 한 침상에서 잔 적이 없는데, 하물며 접촉하여 더럽혔겠습니까? 다만 매일 밤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르게 앉아 한결같은 소리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念)하였으며 혹은 16관(觀)을 짓기도 하였는데, 관이 이미 익어 밝은 달이 창으로 들어오면 때로는 그 빛 위에 올라 가부좌를 했습니다. 이처럼 정성을 다했으니, 비록 서방으로 가고자 하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릇 천리를 가고자 하는 이는 그 첫걸음부터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대사의 관은 동방으로 가는 것이지 서방으로는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엄장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물러나와 곧장 원효법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도의 요체를 간곡히 물었다. 원효가 쟁관법(爭觀法)을 지어 그를 가르치니, 엄장은 이에 몸을 청결히 하고 참회하며 자신을 꾸짖고 한결같이 관을 닦아 역시 서방으로 갔다. 쟁관법은 원효본전(元曉本傳)과 해동승전(海東僧傳)에 실려 있다. 그 부인은 바로 분황사의 비(婢)였는데, 대개 19응신(應身) 가운데 한 분이였다.²⁹⁾

27) 金珠經, 『염불수행의 원리와 전개』, 『회당학보』 14집 (서울: 회당학회, 2009), p.171 ; p.183.

28) 金東胤, 『신라 아미타신앙의 민중지향적 전개와 그 배경』, 『경주사학』 제7집 (경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사학회, 1988.12), p.442.

위 인용문에서 광덕의 아내는 이미 왕성한 광덕이 것처럼 왕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엄장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서방정토에의 왕생을 위해서는 아미타불을 염하고 16관을 닦는 것 외에도 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엄장의 왕생을 돕는 광덕의 아내는, 사실은 분황사의 여종으로 화현한 19응신 가운데 한 명으로서 곧 관세음보살이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설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관세음보살이 왕생을 돕는 조력자로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신라인들에게 관세음보살은 정토왕생과 결부되어, 현실적인 인물로 화현하여 신라인의 성불을 돕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육면 설화의 『승전』에서는 동량팔진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염불결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는 것은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로서 염불수행자들의 정토왕생을 돕는 관세음보살의 역할을 이 땅 신라에서 현현하고자 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육면 설화에서도 정토왕생에 지계가 중시되고 있는데, 『승전』에서 육면이 전전생에 동량팔진이 주도하는 1천 명의 염불결사에 참여하여 일을 맡아 하면서 계를 지키지 못하여 그 다음 생에 부석사의 소로 태어났고, 경을 신고 다닌 공으로 다시 현생에 노비로 태어난 인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신라인들은 정토왕생을 위한 수행에서 지계를 중시하였으며, 이는 염불결사가 갖는 수행불교적 성격의 특징이라 하겠다.

2. 염불결사를 통해 본 신라인의 왕생관

신라인들은 함께 모여 염불수행을 함으로써 정토에 왕생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왕생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정토계 경전과 비교해 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포천산 5비구 설화에서, 다섯 비구가 포천산에 거주하며 10여 년 동안 염불을 하여 왕생하였는데,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산속의 석굴로서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므로 선업을 닦고 계율을 지키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이러한 조건은 『무량수경』에 설해진 3배 왕생 가운데 상배의 왕생에 해당한다.

시방세계의 여러 하늘들과 인간으로서 지극한 마음으로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들 중에 세 가지 부류가 있다. 그 가운데 상배인 자는 집을 떠나 출가하여 욕심을 버리고 사문이 되어 보리심을 발하여 한결같이 오로지 무량수불을 염하여 모든 공덕을 닦아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이다.³⁰⁾

29) 『삼국유사』 권5 感通7, 廣德嚴莊 條.

이처럼 경전에 설해진 상배의 왕생 조건은 출가자로서 욕심을 버리고 보리심을 발하여 일념으로 무량수불을 염하는 것이다. 신라 중대에 다섯 명의 비구들이 포천산의 석굴에서 10여 년 동안 염불수행하였다는 것은 『무량수경』의 상배 왕생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며, 또한 『관무량수경』에 설해진 9품 왕생 가운데 적어도 중품 이상의 왕생에 해당한다.³¹⁾ 이 5비구 왕생 설화는 육면 설화와 함께 여러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오로지 염불수행으로써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하였다는 점에서 공동되며, 염불결사의 주체가 출가수행자들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육면에 비해 정업(淨業) 및 지계 수행이 더 용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육면 설화의 「향전」에서는 육면이 주인인 아간 귀진을 따라가서 염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육면은 노비 신분이며, 이에 비해 귀진은 ‘아간’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사(善士)’라고 표현되어 있어 비교적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재가신자였을 것이다. 귀진은 육두품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 현세에서 생활기반이나 재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실이 절을 짓거나 만일계를 하는 등의 공덕행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연구³²⁾가 있다. 『무량수경』에 의하면 중배는 시방세계의 여러 하늘과 인간으로서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되, 비록 사문이 되어서 큰 공덕을 닦지는 못할지라도 위없는 보리심을 발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무량수불을 염하며, 선을 닦고 재계를 받들어 지니며 탑과 불상을 세우고 사문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등의 공덕을 짓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배는 시방세계의 여러 하늘들과 인간으로서 지극한 마음으로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되, 설사 모든 공덕을 짓지는 못하더라도 위없는 보리심을 발하여 한결같이 뜻을 오로지하여 열 번이라도 무량수불을 염하면서 그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³³⁾ 이러한 『무량수경』의 설에 비추어 볼 때, 재가신자로서 극락세계를 정성껏 구하여 미타사라는 절을 짓고 염불결사한 귀진은 중배 왕생에 해당하며, 육면은 하배의 왕생에 해당한다. 육면과 귀진의 염불수행을 『무량수경』의 3배 왕생에 배대하면 이처럼 차이가

30) 『무량수경』 권하 (『대정장』 12, p.272中), “十方世界諸天人民 其有至心願生彼國 凡有三輩 其上輩者 捨家棄欲而作沙門 發菩提心 一向專念無量壽佛 修諸功德願生彼國.”

31) 『관무량수경』 (『대정장』 12, pp.344下-345下).

32) 이기백, 앞의 논문, p.139.

33) 『무량수경』 권하 (『대정장』 12, p.272中-下), “其中輩者 十方世界諸天人民 其有至心願生彼國 雖不能行作沙門 大修功德 當發無上菩提之心 一向專念無量壽佛 多少修善 奉持齋戒 起立塔像 飯食沙門……其下輩者 十方世界諸天人民 其有至心欲生彼國 假使不能作諸功德 當發無上菩提之心 一向專意乃至十念念無量壽佛願生其國.”

나는데도 옥면이 먼저 왕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1만 일을 기약하고 매일 미타사에 가서 염불한 아간 귀진은 왕생하지 못하고, 법당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뜰에 서서 줄음을 쫓기 위해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 즉 두 손바닥을 꿰어 말뚝에 묶고 줄음을 쫓아가며 염불한 옥면이 먼저 왕성한 까닭을 『무량수경』의 다음 내용에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무량수불의 위신력과 광명은 가장 존귀하며 제일의 것이니 다른 모든 부처님의 광명으로는 미칠 수 없다. 혹은 부처님의 광명이 있어서 백 부처님 세계, 혹은 천 부처님 세계를 비추며, 요점을 말하자면 동방의 항하의 모래 수만쯤 많은 부처님 국토를 비춘다… 중략 …중생들이 그 광명을 만나면 세 가지 번뇌[垢]가 소멸하고 몸과 뜻이 유연하며 떨 듯이 기뻐하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만일 삼도의 힘들고 괴로운 곳에 있을지라도 이 광명을 보게 되면 모두 휴식을 얻어 다시는 괴로움과 번뇌가 없으며, 목숨을 마친 뒤에는 모두 해탈하게 된다.³⁴⁾

무량수불의 광명을 입은 중생은 세 가지 번뇌가 소멸하고 심신이 부드럽고 경쾌해지며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삼악도의 힘들고 괴로운 곳에 있는 중생일지라도 이 광명을 만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안온함을 얻게 된다.

만일 어떤 중생이 그 광명의 위신력과 공덕을 듣고 하룻밤 동안 찬탄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한다면, 원하는 바에 따라 뜻대로 그 국토에 태어나게 된다.³⁵⁾

중생이 무량수불의 광명의 위신력과 공덕을 듣고 하룻밤 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찬탄하면 소원대로 무량수불의 국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옥면은 오로지 염불하는 것으로써 자신이 처한 신분상의 고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겨 지심으로 염불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귀진은 옥면이 처한 상황과 달랐다. 그는 사회적 신분과 노비를 부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이었다. 비록 그가 정토왕

34) 『무량수경』 권상 (『대정장』 12, p.270上-中), “無量壽佛威神光明最尊第一 諸佛光明所不能及 或有佛光照百佛世界 或千佛世界 取要言之 乃照東方恒沙佛刹……其有衆生遇斯光者 三垢消滅 身意柔軟 歡喜踊躍善心生焉 若在三塗勤苦之處 見此光明皆得休息無復苦惱 壽終之後皆蒙解脫.”

35) 『무량수경』 권상 (『대정장』 12, p.270中), “若有衆生 聞其光明威神功德 日夜稱說至心不斷 隨意所願得生其國.”

생이라는 고귀한 목적을 향해 염불결사에 동참하여 수행하였을지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육면에 비해서는 그 절실함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즉 똑같이 염불을 하였지만 육면에게는 귀진이 갖지 못한 왕생의 간절함과 지극함이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무엇보다 중요한 염불 왕생의 인(因)이 되었다고 본다. 여기에 더하여 『무량수경』의 다음 내용이 주목된다.

시방의 항하의 모래 수만쯤 많은 모든 부처님 여래가 모두 함께 무량수불의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공덕을 찬탄하시니, 그 명호를 들은 모든 중생들이 믿는 마음으로 환희하며 내지 일념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하여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곧 왕생하여 불퇴전에 머물게 되는데, 다만 오역죄를 지은 자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³⁶⁾

『무량수경』에서는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든 중생이 정도에 왕생할 수 있다고 설한다. 물론 『관무량수경』에서 하품하생을 설명하면서 오역죄나 십악 등을 지은 사람이 악업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겠지만 임종시에 선지식의 도움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무량수불을 부른다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목숨을 마친 뒤에는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다시 12대겁을 지나 보리심을 발한다고 하고 있어,³⁷⁾ 『무량수경』과 비교해 볼 때 결국 하품의 범부일지라도 정법을 비방하지 않으면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 왕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³⁸⁾ 다시 말하면, 육면이 비록 하배 혹은 하품에 속한 범부이지만 정법을 비방하지는 않았으므로 경전에 의거하면 육면의 왕생은 타당하다. 『무량수경』의 3배 왕생을 기준으로 하면 귀진의 왕생 가능성이 더 크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염불하였다는 절실함의 측면에서는 육면의 왕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육면이 먼저 왕생하였으므로 정도왕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극한 마음과 쉽없는 정진이 라는 실천적인 면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육면 설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여인(女人)왕생과 천인(賤人)왕생이다.

36) 『무량수경』 권하 (『대정장』 12, p.272中), “十方恒沙諸佛如來 皆共讚歎無量壽佛威神功德不可思議 諸有衆生聞其名號 信心歡喜乃至一念 至心迴向願生彼國 卽得往生住不退轉 唯除五逆誹謗正法.”

37) 『관무량수경』 (『대정장』 12, p.346上).

38)曇鸞, 『無量壽經優婆提舍願生偈註』 (『대정장』 40, pp.833下-834上); 이태원, 『왕생론주 강설』 (서울: 운주사, 2003), p.237 참조.

여인의 왕생과 관련되는 것은 범장 비구의 제35원(願)이다.

내가 부처가 될 때 시방의 한량없는 불가사의한 모든 부처님 세계에 있는 여인들이 나의 이름을 듣고서 환희하고 신락(信樂)하며 보리심을 발하여 여인의 몸을 염오(厭惡)하였는데도 목숨을 마친 뒤에 다시 여인의 형상을 받는다면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³⁹⁾

이 제35원은 이 경전이 성립될 당시의 사정을 암시하고 있다. 즉 당시 인도사회에서 여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인의 몸을 받지 않기 위하여 보리심을 일으켜 여인의 몸을 받지 않기를 원하면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⁰⁾ 아울러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였을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량수경』의 위 내용은 현실적인 여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그에 따른 구제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⁴¹⁾ 그 결과 여인의 몸으로 왕생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몸으로 바뀌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육면비염불서승』조에도 보인다. 결국 육면은 여인이며, 천인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왕생하였다. 물론 도중에 남자의 몸으로 변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여성의 몸으로는 왕생할 수 없다는 경전의 설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함으로써 성별과 신분을 초월하여 왕생한 것은 범장 비구의 48원(願) 가운데 제18원에 의거한다.

내가 부처가 될 때 시방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신락(信樂)하며 나의 국토에 태어나고자 하여 내지 열 번 염불하였으나 만일 태어나지 못한다면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 단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⁴²⁾

39) 『무량수경』 권상(『대정장』 12, p.268下), “設我得佛 十方無量不可思議諸佛世界 其有女人聞我名字 歡喜信樂發菩提心 厭惡女身 壽終之後 復爲女像者 不取正覺。”

40) 한태식(보광), 「정토교에서의 깨달음 문제」, 『정토학연구』 제12집 (성남: 한국정토학회, 2009. 12), p.59.

41) 구자상, 「정토교에 있어서의 여성구제론」, 『정토학연구』 제9집 (성남: 한국정토학회, 2006. 12), p.128.

42) 『무량수경』 권상(『대정장』 12, p.268上), “設我得佛 十方衆生 至心信樂 欲生我國 乃至十念 若不生者 不取正覺 唯除五逆誹謗正法。”

비록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자를 제외한다고는 하였으나 여기에는 남자가 아닌 여자는 왕생하지 못하며, 또한 천한 신분의 사람은 왕생하지 못한다는 언급이 없다. 오직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그의 국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염원만 있으면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토에의 왕생을 위해서는 보리심을 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포천산 5비구 설화와 육면 설화에서, 서방정토에의 왕생은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는 수행력과 지계 정신에 의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육면의 경우, 비록 노비라 할지라도 염불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 때문에 스스로 구속되거나 제약을 받는 모습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당시 염불수행자의 자존감을 읽을 수 있으며, 신라 중대의 염불결사는 하층민들에게도 삶의 본질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였다고 하겠다.

V. 결어

아미타신앙은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하여 서방정토에의 왕생을 바라는 타력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서, 특히 중국과 한국 및 일본에서 대중성을 확보하며 널리 신앙되었다. 신라 중대에 이러한 정토왕생을 발원하고 실행한 염불결사는 혼자서 염불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토왕생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실행한 것이었으므로 염불수행이 당시에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삼국유사』 소재 염불 왕생 설화에 의하면, 신라 중대에는 두 사람의 염불 왕생 결의 및 5명, 수십 명, 1천 명이 참여하는 염불결사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염불 왕생 설화들은 기본적으로 『무량수경』·『관무량수경』 등 정토계 경전과 관련이 있지만, 경전의 설과 달리 죽은 이후가 아닌 현세에서의 왕생을 회구함으로써 신라인들의 창의적 아미타신앙관을 보여준다. 특히 신라 중대의 염불결사는 수행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 쉽 없는 염불정진과 발보리심, 그리고 지계가 중시되었다. 즉 신라 염불수행자들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마침내는 성불하겠다는 믿음이 있었으며, 그러한 믿음을 토대로 서원을 세우고 정진한 신라 염불수행자들의 지극한 마음과 보리심이 그들을 정토왕생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염불수행은 과거 신라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대에도 불교인들의 신행생활에

있어 주요한 관심사이다. 신라 중대에 행한 염불결사의 취지를 되살려 현대인들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실천한다면 종교로서 불교의 역할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 『觀無量壽經』(『大正藏』 12).
- 『無量壽經』(『大正藏』 12).
- 曇鸞, 『無量壽經優婆提舍願生偈註』(『大正藏』 40)
- 一然, 『三國遺事』(『韓佛全』 6)
- 구자상, 「정토교에 있어서의 여성구제론」, 『정토학연구』 제9집, 성남: 한국정토학회, 2006.12, pp.117-144.
- 金東胤, 「신라 아미타신앙의 민중지향적 전개와 그 배경」, 『경주사학』 제7집, 경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국사학회, 1988.12, pp.431-446.
- 김성순, 「동아시아 민간불교결사의 공덕신앙과 장의(葬儀)-한국의 향도와 돈황의 읍사」, 『종교연구』 제62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2011, pp.265-299.
- 김영미, 「고려 전기의 아미타신앙과 결사」, 『정토학 연구』 제3집, 서울: 한국정토학회, 2000, pp.145-173.
- _____, 「통일신라시대 아미타신앙의 역사적 성격」, 『한국사연구』 제50·51집, 서울: 한국사연구회, 1985, pp.37-78.
- 金珠經, 「염불수행의 원리와 전개」, 『회당학보』 14집, 서울: 회당학회, 2009, pp.165-206.
- 文明大, 「景德王代の阿彌陀造像問題」, 『李弘植 博士 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서울: 新丘文化社, 1969, pp.647-686.
- 신종원, 「『삼국유사』 「육면비염불서승」조에 보이는 역사와 설화」, 『전통문화논총』 제7권, 서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09.8, pp.90-122.
- 李基白, 「신라 淨土信仰의 諸樣相」, 『한국불교학연구총서』, 고양: 불함문화사, 2003, pp.127-145.
- 이태원, 『왕생론주 강설』, 서울: 운주사, 2003.
- 章輝玉, 「신라 미타신앙의 고찰」, 『백련불교논집』 1, 합천: 해인사 백련불교문화재단, 1992, pp.249-280.
- 鄭柄朝, 「義湘의 彌陀信行 研究」, 『新羅文化』 제7집, 경주: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0, pp.215-230.

- 채상식, 『한국 중세시기 香徒의 존재양상과 성격』, 『한국민족문화』 제45집, 부산: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pp.51-83.
- 최성렬, 『삼국유사 옥면비염불서승조의 몇 가지 문제점』, 『한국불교학』 제6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1981.12, pp.143-158.
- 한태식(보광), 『한국 정토사상의 특색』, 『정토학연구』 제13집, 성남: 한국정토학회, 2010.6, pp.73-97.
- _____, 『정토교에서의 깨달음 문제』, 『정토학연구』 제12집, 성남: 한국정토학회, 2009.12, pp.50-100.
- _____, 『만일염불결사의 성립과 그 역할』, 『정토학연구』 창간호, 서울: 대각회, 1998, pp.51-72.
- _____, 『신라·고려대의 만일염불결사』, 『불교학보』 제31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4, pp.133-157.
- _____, 『신앙결사의 유형과 그 역할』, 『불교학보』 제30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3, pp.159-192.
- _____, 『신앙결사의 성립배경에 관한 연구』, 『불교학보』 제29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2, pp.301-326.

〈Abstract〉

A study on the Faith association of Chant as Buddhism for practice : focusing on Shilla-middle period

Park, Seo-Yeon

This paper aims at revealing the awareness of the Pure Land and how to Perform a chant(念佛) through the stories on Returning to the Pure land of Amitabha(極樂淨土) in the historic records of three countries buddhism(三國遺事). Originally, the Pure Land teachings are based upon outside help of Amitabha-buddha(阿彌陀佛) for salvation. But we find the aspect of buddhism for practice in the Faith association of Chant in Shilla-middle period. I studied on this in the respect of Faith association. First, there were several types of Faith association in Shilla-middle period, starting with the five people chanting. Especially, Ukmyon the slave-girl returned to the Pure land of Amitabha-buddha by performing a chant zealously. I found out that the people of the lower classes could know the real nature of life through the Faith association of Chant in the Shilla-middle period. Secondly, the stories on Returning to the Pure Land in Shilla-middle period was based on the scriptures of the Pure land systems and it was a creative idea. Thirdly, the Faith association of chant was practical and put emphasis on the diligent executions and Keeping the Buddhist Commandments.

In conclusion, the Chant performer believed that they could return to the Pure land by practicing the wholehearted chanting and keeping the Buddhist Commandments in Shilla-middle period.

• **Key Words**

Faith association of chant, the historic records of three countries buddhism,

Ukmyon, pure land of Amitabha, Keeping the Buddhist Commandments,
Returning to the Pure land, Shilla

논문접수일: 2014년 06월 13일, 심사완료일: 2014년 07월 15일,
게재확정일: 2014년 07월 23일.